

No.13

Japan Weekly Digest

2009. 12. 14 ~ 12. 20



CONTENTS

□ 금주의 이슈

- 日, 올해의 한자 '신(新)'선정
- 하토야마 총리 어머니, 위장헌금 부정
- 일본상장기업, 아시아매출 미국추월
- 일본, 원폭피해 한국인에게 110만엔씩 지급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한일FTA협상을 위한 실무협의 21일 개최
- 하토야마 총리, 중국 시진평 부주석과 회담
- 이명박 대통령, 내년 한일관계 도약의 계기로
- 서울재팬클럽, 지경부에 45개 건의사항 전달

Japan Weekly Digest (No.13)

(사)한일경제협회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 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 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 02-3014-9800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경단련, 일본의 성장전략 제언 경산성에 제출
- 나오시마 경산상, 경제성장전략 방향 언급
- 경산성, 엔고영향 긴급조사실시
- 일본정부,「정보통신문화성」설립검토
- 일본정부. 개도국에 1조 7500만엔 지원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· '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전략 제언', 일본경단련

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□ 금주의 이슈

ㅇ 일본, 올해의 한자 '신(新)'선정



- 일본한자능력협회는 올해의 한자를 신(新)으로 결정. 일본 교토 청수사에서 발표
 - · 일본 신정권 탄생,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, 이 치로 선수 9년 연속 200안타의 신기록, 신종 플루 유행 등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선정 이유
 - * 2005년 愛 , 2006년 命 , 2007년 僞, 2008년 變
- ㅇ 하토야마 총리 어머니. 위장 헌금을 부정
- 하토야마 총리의 자금관리단체인「우애정경간담회」를 둘러싼 자금문제로 총리의 어머니가 도쿄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해 위장헌금 사실을 부정
- · 04~09년간, 9억엔의 자금제공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. 자민당 소속의 동생 구니오 전총무상도 11억엔 지급
- ㅇ 일본 상장기업,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매출 미국추월
 - 일본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4~9월간 일본상장기업 매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. 일본, 미국, 유럽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성장성이 높은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
 - · 3분기 일본상장기업의 아시아 매출 16.2조엔, 미국 매출 15.8조엔
- ㅇ 일본. 원폭 피해 한국인에게 110만엔씩 지급
 -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폭 피해 수당을 받지 못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위자료 110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
 - ·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폭자 1014명 중 2006년 1차로 소송에 참여한 130명에게 1인당 110만엔과 변호사비용을 지급
- ㅇ 일본경제신문,「한국기업의 강한 비결」특집시리즈 게재
- 삼성, LG의 글로벌 경영을 소개하고 일본기업의 특단의 경영전략이 필 요하다는 취지로 시리즈를 16일~18일 연재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ㅇ 한일FTA 협상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 등
- 제4차 한일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 실무협의가 21일 서울에서 개최
 - · 한일FTA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, 비관세 장벽해소, 산업협력에 대해 논의 예정
- 제12차 한일 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가 16~17일,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개최
- · 한국의 'IT Korea 5대 미래전략', 일본의'i-Japan전략 2005'등 IT를 활용한 교류증진과 공동협력분야에 대해 논의
- ㅇ 하토야마 총리, 중국 부주석과 회담
 - 하토야마 총리는 14일,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알려진 시진핑 부주석과 회담을 개최.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
 - · 일본은 중국의 젊은 연구자를 2010년부터 2년간 700명의 인재를 초청
 - · 시진핑 부주석은 하토야마 총리가 주창한「동아시아공동체」구상에 동조발언
 - · 외국 요인이 일왕을 면담하려면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관례를 깨고 시진핑 부주석은 15일 아키히토 일왕도 특별 접견을 했으나 일본 정치권은 이 '특례 면담'때문에 벌집을 쑤신 것처럼 논란이 있었음
- ㅇ 이명박 대통령, 내년 한일관계 도약의 계기로
 -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일협력위원회 관계자(일본중의원 5인 訪韓) 면담에서 "내년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인만큼 서로 노력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"고 언급
 - · 그 외도 각계각층의 젊은 인재들의 인적,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
- ㅇ 서울재팬클럽(SJC), 지경부에 45개 건의사항 전달
 - 한국진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 대표와 지경부장관과 간담회를 개최 아와야 츠토무(한국미츠비비상사) 이사장은 한국정부의 투자환경 개선노력 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45개 건의사항을 제출
 - · 법정퇴직금제도 개선, 금융실명 확인절차 개선, 디자인 및 상표등록요건 개선, 외국인근로소득 비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ㅇ 경단련, 일본의 성장전략 제언 경산성에 제출
 - 경단련은 장기적「일본경제 성장전략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. 경단련 이 일본의 산업전체에 관한 성장전략을 수립한 것은 처음 있는 일
 - · 신규유망분야 : 아시아경제, 환경, 전자정부, 의료개호보육, 농업·관광 등
- ㅇ 나오시마 경산상, 일본경제성장전략 방향에 대해 언급
- 나오시마 경산상은 일본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를 수출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으로 생각하고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
- ㅇ 경산성, 엔고영향 긴급조사 실시
 - 조사결과, 올해 8월, 1달러=95엔에서 85엔까지 상승하여 약 52%의 기업의 수익이 악화됐다고 응답
 - ·심각한 정도 수익 감소 6%, 다소의 이익 감소 46%
 - ㆍ비제조업을 합친 전산업에서는 약 32%가 수익이 악화됐다고 응답
- ㅇ 일본정부,「정보통신문화성」설립 검토
- 일본정부는 총무성, 경산성, 문화청 등 복수의 성청이 맡고 있는 방송· 정보통신기능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설립을 검토
- · 하라구치 총무상은 「총무성엔 정보통신, 지방자치, 관리·행정의 3개업무가 있다.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 조정해야 된다」고 주장
- ㆍ경산성의 정보통신 관련 부서, 문화청의 방송저작권 관리기능을 통합 예정
- ㅇ 일본정부, 지구온난화대책으로 개도국에 1조7500만엔 지원
-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회의에서 오자와 환경상은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개발도상국에 1조7500만엔을 지원할 방침임을 밝힘
- · 1조7500만엔 중 약1조3000억엔(약145억 달러)은 공적자금이고 나머지는 민간자금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'경제위기 이후의「일본경제 성장전략」제언', 일본경단련 , 2009.12.14

- 경제위기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일본경제는 최악상황은 벗어났으나, 악화된 고용환경, 디플레이션의 진행 등 여전히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기대되는 5개 분야에 집중전략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
- ㅇ 새로운 수요가 기대되는 분야와 대응 대책
 - 성장을 지속하는 아시아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아시아시장에서의 수요 획득을 위한 기업지원과 장기적 과제인「동아시아공동체」의 구축 을 시야에 둔 대책마련이 필요
 - · EPA/FTA의 추진, 서비스업의 외자출자규제의 완화,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등
 - 일본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건축물·설비의 친환경화와 에너지절약 투자 등 해외에서 수요 획득과 중국 등 신흥국에서 잠재수요를 개척

· 환 경 장 치 : 일본기업의 신흥국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정비

· 태양광발전 : 산관학의 협력 연구개발, 인재육성, 정부에 의한 보급 지원

· 원자력발전 : 도입국에 대한 인적·자금협력, 기반정비 지원

· 친환경제품 : 친환경가전·기기, 친환경건물의 보급지원책 실시, 관세 철폐,

차세대차 모델사업 전개, 축전지 연구개발, 양산체제 확립

·물비지니스: 국가전략·추진전략의 정비, 모델사업의 실시

- ICT(정보통신기술)를 활용한 전자행정의 추진
 - ·세금·사회보장제도. 공통번호제도(주민번호)를 전제로 한 전자행정추진
- 의료나 개호분야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·고령화 대응
 - · 의료서비스의 공급체제 정비, 메디컬·투어리즘의 육성, 의약품, 의료사업 의 경쟁력강화
- 농업, 관광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진흥을 통해 지역 잠재력을 강화
 - ㆍ농업경영의 고도화, 제품의 고부가가치화, 수출 확대
 - ㆍ농업과 의료를 융합시킨 새로운 관광사업의 발굴 . 관광인프라의 정비